

'26. 10. 2(금) / 대테러종합상황실

지역별 테러 동향

아 · 테

- 수천만원 배상 판결에도…경기남부 ‘폭파 협박’ 매달 20건
 - 9.25 언론은 허위 폭파 협박 등 공중협박 범죄에 대한 배상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, 올해 들어 경기남부에서만 매달 20건 안팎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관련 범행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보도
- 고교시절 ISIS 충성 맹세·폭발물 테러 모의 대학생 실형
 - 9.29 언론은 청주지법이 고교 재학 중 ISIS 사이트에 수천 차례 접속해 충성을 맹세하고, 모잠비크를 대상으로 폭발물 테러를 계획한 18세 대학생에게 장기 1년6개월·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보도

유 럽

- 獨, 분슈토르프 공군기지 인근서 폭발물 의심 드론 잔해 발견
 - 9.24 언론은 독일 당국이 분슈토르프 공군기지 인근 들판에서 드론 잔해를 수거했으며, 일부 부품이 지난달 라이프치히-할레 공항에서 발견된 폭발물 드론과 겹쳐 러시아와의 연관성을 수사중이라 보도
- 英, 유럽 테러모의 하마스 인사, 영국 망명해 시민권까지 받아
 - 9.27 외신은 하마스 수장 경호원 출신 ‘미스터X’가 10여년 전 영국에서 난민 지위와 시민권을 취득한 뒤, 유럽 내 유대인 대상 테러 모의에 가담해 무기·탄약을 조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보도

미 주

○ 美, BC주 텀블러리지 총격범과 챗GPT 대화 공개

- 9.26 언론은 지난 2월 BC주 총격범이 범행 전 챗GPT와 총기 공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안전장치 우회 방법까지 안내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, BC주정부가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AI기업에 대한 규제를 촉구했다고 보도

※ 지난 2월10일 BC주 텀블러리지에서 18세 남성이 자택에서 어머니와 남동생을 살해한 뒤 학교로 이동해 총기를 난사해 총 8명이 희생됐다.

○ 英, 미군 전초기지 테러 음모 용의자 5명, 하루만에 보석 석방

- 9.29 언론은 영국 RAF 페어포드 기지 인근에서 영국인 남성 5명이 테러행위 준비혐의로 체포됐으나, 구속기간 만료로 이동·접촉 제한 조건부 보석 석방됐으며 다각도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보도

※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난 7월 페어포드 기지를 ‘정당한 공격 목표’로 경고한 바 있어 이란 배후설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란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부언

중 동

○ 이라크, 키르쿠크 작전서 IS 대원 2명 사살·1명 체포 보도

- 9.21 언론은 이라크 대테러청이 키르쿠크에서 IS 조직원 3명을 추적해 자폭 조끼 착용 2명을 교전 끝에 현장에서 사살하고 1명을 체포했으며 민간인 1명 사망, 대원 2명이 부상당했다 보도

※ IS가 영토 상실 후에도 자폭 조끼를 활용한 잔존세력 활동을 지속하는 만큼, 은신 조직 추적과 자폭테러 징후정보의 선제 탐지 강화 필요하다 부언

○ 이스라엘 예비군, 서안 소재 검문소 대상 차량 돌진에 피습

- 9.24 언론은 요르단강 서안 마키빔 검문소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이 경찰차를 향해 차량을 돌진해 현장에서 근무하던 예비군 1명이 중태에 빠졌고, 공격자는 사살되었다 보도

역사 속 테러사건

인도네시아 '발리 폭탄테러'

- '02.10.12 인도네시아 발리 쿠타 관광구역에서 자살폭탄테러가 발생, 202명이 사망하고 209명이 부상
 - ※ 사망자 대부분은 관광객으로 호주 88명 · 영국 26명 · 미국 7명 · 한국 2명 등
 - 범인은 폭탄이 든 배낭을 메고 나이트클럽으로 들어가 자살폭탄테러를 자행하였으며, 동시에 클럽 밖에 세워둔 차량에서도 폭탄이 폭발
 - ※ 범행에 사용된 차량에 적재된 사제 폭발물 1톤을 원격으로 폭파
 - 同 공격은 인도네시아 내 알카에다 비밀 캠프에서 위탁훈련을 받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「제마 이슬라미야(JI)」의 소행으로 밝혀짐
 - 同 사건으로 JI 조직원 총 34명이 유죄가 인정되어 구속되었으며, 그중 3명에게는 사형 · 나머지 조직원들은 징역형 등이 선고
 -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동남아 권역에서 테러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,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아 테러 발생
- ⇒ 국내외 우리 국민 테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테러 관계기관간 테러 첩보 ·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고, 사전 보호조치 필요

테러 상식

< 제마 이슬라미야(JI : Jemaah Islamiyah) >

- (결성) '40년대 네덜란드 식민통치에 저항하던 급진 이슬람운동에서 기원, 독립 이후 극단주의자들이 동남아 전체를 아우르는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건설을 목표로 '93년 결성
 - * 테러단체 지정 : UN·美·호주('02.10월), 英('02.11월), 캐나다('03.4월)
- (활동지역) 인니·말레이시아·필리핀 등 동남아 전역
- (활동수법) 미국·서방시설 겨냥 폭탄테러, 군·경찰 대상 무장공격
- (특징) △'02.10월 발리 테러 등을 자행하면서 '동남아 알카에다'로 불리며 가장 위협적 테러조직으로 평가되었으나, 정부 소탕작전으로 크게 약화
 △'20.8월 인니 보안당국은 “자국의 장기적 최대 테러위협은 JI의 재건이며, 최근 이들이 조직원 再규합 등 세력 회복에 주력 중”이라고 평가
- (주요테러) △'02.10월, 발리 나이트클럽 등 연쇄 폭탄테러(호주인 88명 등 202명 사망)
 △'05.10월 발리 소재 식당 등 3곳 연쇄폭탄테러(호주·일본인 등 26명 사망)

